

죽어서도 그리운 누이

최성임

분을 데리고 못 나온 나는
주검을 일으켜야 할 것만 같소

오라비 등허리 짐 뒤에
너 하나를 엮지 못한 죄로

평생을 죄인으로 살다가
남녘땅 기슭에서 묻혔소

사립문 앞에 그렁그렁
웃고름에 눈물 닦으며
명경이랑 참빗 사 오라던 말

죽어서도 그 말을 못 잊어
무덤 속 머리맡에 놓았으니

우리 분이 이리 와서
명경 가지고 놀으렴

주검조차도 너를 못 잊어
북녘땅으로 머리를 누운
오라비 한 번만 보고 가렴

네 머리위에 떡구름 일거든
누이 그리운 명울로 여기고

돌풍에 소낙비 내리거든
오라비 한탄이라 여기렴

우리 분이 살아서 살포시
오라비 무릎 위로 이리 온

참빗으로 어여쁘게 빗겨서
세 가닥 땡기머리 해줄 테니

너 하나를 업고 나오지 않은 죄로
오라빈 죽어서 씌을 핑계도 없느니